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발 한 켤레의 사랑 -북 코스모스 중에서- 윤영준

바클레이는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정거장에서 기차를 탔다. 기차가 출발한 지 약 10분쯤 지났을 때,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한 청년이 경련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기차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마구 몸을 뒤틀며 무섭게 떨었다. 간질이였다. 그러자 그와 함께 앉아 있던 청년이 그를 의자 위로 들어 올려 눕히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었다.

그 청년은 바클레이를 향하여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질이 오는데, 바로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또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친구와 저는 월남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인이고, 저는 미국인입니다. 베트남과의 전투에서 우리 둘은 모두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쪽 다리는 날아가 버렸죠." 이야기를 계속 하며 바지 부리를 걷어올리는데 자세히 보니 의족이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자기 옆에서 터진 수류탄으로 인해 한쪽 가슴이 영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조하러 오던 헬리콥터는 베트남의 포화를 맞고 추락해 버렸지요. 우리에게만 죽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내 군복을 움켜잡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가슴에 박힌 수류탄 파편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나는 결국 죽을 몸이니 그냥 놔두고 가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는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하면서 악착같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자기 혼자 살 길을 찾기에다 필사적인 상황에, 그는 결국 나를 이끈 채 정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출되었지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다. "3년 전 나는 이 친구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침 독신이였기에, 미국의 집을 팔고, 은행의 돈을 찾아서 친구를 돌보기 위해 영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나는 친구와 늘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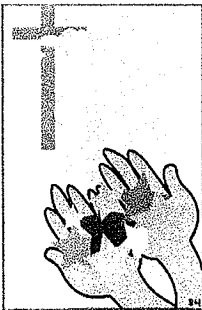
바클레이는 청년에게 말했다. "나에게 조금도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내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 준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2월 13일
☎369- 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Slow Me Down

- 윌프레드 피터슨 -



주님, 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요케 하심으로 심장의 박동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영원의 비전으로서 저의 허둥대는 페이스를 안정되게 하소서
혼동스런 날 가운데서도 영원한 언덕의 고요함을 제게 주소서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부드러운 음악의 물줄기로
내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옵소서
잠시 휴식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꽃을 보기 위해
친구와 담소하기 위해
개를 쓰다듬기 위해
어린이에게 미소짓기 위해
좋은 책의 글 몇 줄을 읽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가르쳐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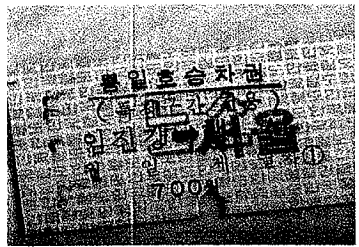
주님 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속적인 가치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더 위대한 목표점을 향해 제가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쟁은 언제나 빠른 자의 것이 아니며
인생이란 그 속도를 증가하는 것 이상임을 매일 상기시켜 주십시오
숫아오른 참나무를 바라보며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잘 자랐기 때문에
크고 강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뎨 그랬지▶ 기차표

창구에서 역명을 말하고 돈을 내면 딱딱하고 네모진 기차표를 받았습니다. 대합실 입구에서 역무원이 차표 검사한다며 기차표 한쪽에 조그맣게 구멍을 내면 도중 기차안에서도 차장이 다시 작은 몇 개의 구멍이 생기도록 무엇으로 찌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면 편할 텐데 왜 힘주어서 구멍을 내야 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기차표 없이 타서는 검사하러 온 차장을 피해 화장실로 숨던 일화는 학창시절의 애교스런 무용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딱딱한 네모 모양의 기차표! 옛날의 나를 찾아 기차표 한 장 들고 이름없는 간이역에 내려 보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 ▶
좋은 남편은 아내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남편은 식당에서 혼자 맛있는 것 먹다가 아내 친구한테 들키면 아내한테 애기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한다.

◀좋은 아내 ▶
좋은 아내는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멋있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아내는 남편이 셔츠를 입을려고 하면 다려놓기 무섭게 속속 빼입는다고 소리지른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85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22(시 96)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찬 송 Hymn	331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장현중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6:13-20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 십자가 성가대 (1,2구역)
설 교 Sermon	『예수를 만난 사람들(4)』 “베드로의 그 고백”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74장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2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6	이재영	고성일	5구역	1남여
13	장현중	권영희	6구역	1,2구역
20	정덕수	권오걸	학생부	3,4구역
27	정희자	권용일	7구역	2남여

◆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사순절시작(9) 구역예배(11)
13	믿음의어머니기도회(15)
20	식사친교주일
27	이삭줍기주일 선교회.당회

2005년 교회생활

- 1.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 2.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 3.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 *3주간 예배,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낮 12시 | 수요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공 6:00 | 청년부:토 저녁 4시

<갈보리교회 방침> 『회 의』

*회의로 인해 주일에 사랑과 은혜의 위로를 사모하여 오신 교우들에게 짐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1)주일은 예배를 통해 은혜만을 누리며 날이어서 각종 회의는 갖지 않습니다
- 2)단 선교회는 형편상 주일에 모이되 회의시간을 2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교우소식

<새주소> *권용일.이지영 집사 ☎ 475-5700. 1/85 Sunrise Ave. Murrays Bay
*박정자 집사. ☎419-2600. 13 Aorangi Pl. Birkenhead

<등록> *이승희,김성희 성도(6구역.4선).조은 수지.해모

☎828-9516. 38 Tony Segedin Dr. Avondale

*김지혜 성도(9구역.4선).다은.민수 ☎ 520-3007 30A Grand Dr. Remuera

2.Tsunami 참사를 돕기위한 "TSUNAMI 헌금"

*우리의 사랑으로 허물어진 벽 한 쪽이 세워진다면, 부모잃은 아이들이 작은 위로를 얻는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혜택을 받는지에는 관심없습니다.

*미처 드릴 기회를 못가진 교우께서는 예배 후 안내석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3.2005년 부활절 봉헌 성경쓰기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범위> 마태복음

*한 자 한 자 손으로 써 가는 말씀, 마태복음속에 있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안내석에 성경쓰기 용지가 더 준비되어있습니다.

4.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5일(화) 오후1시> . 여성교우들만의 기도모임입니다.

5.구역장을 선출하신 구역은 알려주십시오

6.기독교 이단문제에 관한 연합집회<15일(화)-17(목) 저녁7:30. 오uckland순복음교회>

*어떤 교회,단체가 왜 이단인지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착한 시인▶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취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흩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를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시간이 지나면 사랑했던 사람만
이 아니라 덩고 차가웠던 계절도
그리움으로 남게 되는가 봅니다.
오래동안 머물 것 같던 여름더위
도 언제 그랬는지 밤이면 선선한
바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밤을 연인들로 채워졌던
Bay의 벤취가 행하니 어둠속에
비어져 있음은 지나가는 여름의
쓸쓸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많던 연인들은 지금은 어디서
못다 나눈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지요....
또 한번의 여름이 지나는데 여
름이 남겨놓은 그리움은 너무 짙
습니다.